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이타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국제교류원 파견 안내

국제정책과에서는 소속 **국제교류원(CIR)**의 자국 문화와 생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국제교류원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개요

- 대상 오이타현 내 학교, 지역 단체, 공민관 등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조정 가능)
- 내용 국제교류원 출신 국가의 문화, 관광, 식사, 놀이 등 소개
- 비용 무료(단, 교통비·재료비 등 비용 발생 시 부담 필요)

※파견 가능 국제교류원(2025.4.~): 영국, 중국, 한국

신청 방법

- ①아래 문의 전화로 일정 및 내용 전달
- ②확인 후 가능 시 신청서 제출 안내(제출 마감: 파견일 한 달 전)
- ③국제교류원과 내용 협의 및 준비
- ④파견 진행! 국제교류원과 즐겁게 교류

주의 사항

요청하시는 파견 일시 또는 내용에 따라 파견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오이타시 오테마치 3-1-1(우편 번호: 870-8501)
☎097-506-2046 / a10140@pref.oita.lg.jp

관련 사이트

국제교류원 소개



파견사업 안내



여러분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알려 주세요!
(※양식 자유)

〈기사제공/문의〉

- 발행: 오이타현 국제정책과
- 담당: 쇼노(生野), 나카야마(中山)
- 메일: a10140@pref.oita.lg.jp

募集中!





2024 히타 강 놀이 관광제, 디즈니 캐릭터 등장!



도쿄 디즈니 리조트® 스페셜 퍼레이드

지난 5월 25일과 26일에 열린 ‘제77회 히타 강 놀이 관광제’에 디즈니 친구들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벗어나 ‘물의 고향 히타 돈타쿠 카니발’을 찾았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7만 1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잔 공원에는 ‘더피 버스’가 전시되어 한층 더 웃음과 열기가 가득했던 히타 강 놀이 관광제는 올해도 개최되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 2024 히타 강 놀이 관광제 불꽃놀이는
아래 코드를 스캔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 히타 강놀이
관광제 개최 일정
5월 24일,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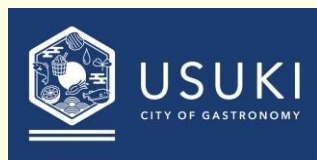
사이키시에서는 사이키 참다랑어와 복어를 비롯한 고급 흰살생선을 맛볼 수 있는 관광 캠페인 ‘사이키 참다랑어 페어: 홍백 대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백 대결’에서 ‘홍’은 사이키만에서 많이 양식되는 참다랑어를, ‘백’은 ‘복어, 도미, 광어’ 등의 흰살생선을 의미하는데요. 캠페인 기간(2월 8일~4월 13일) 동안 사이키시 16개 점포에서 이를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우스키, 세계로!

다양한 식문화와 오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스키에서는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매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에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부라이다 식문화 이벤트에서 우스키 지역 요리 ‘차다이즈시’를 선보였습니다.



2024 우스키 식문화 축제(11월 23일-24일)에서 해외 창의도시 요리사가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식문화 포장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미타마 체험 파크 ‘쓰쿠미 돌고래 섬’에 놀러 오세요!



돌고래와 마음껏 놀 수 있는 오션 리조트 ‘쓰쿠미 돌고래 섬’에서는 돌고래 조련사처럼 돌고래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악수하고, 함께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돌고래 퍼포먼스와 일본에서 유일하게 ‘푸싱’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이곳에서 돌고래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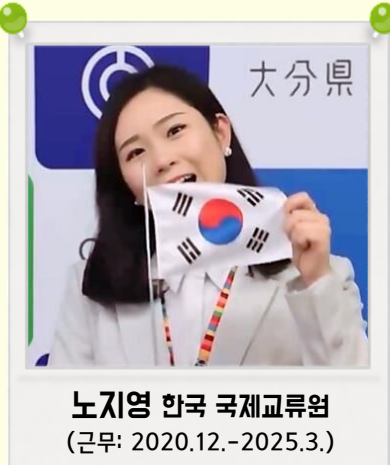
- 운영 시간: 10:00-16:00(시기별 상이)
- 입장료: 성인 1,300엔 / 소인(초, 중학생) 800엔

어린이 650엔 ※체험료 별도

- 주소: 津久見市大字四浦4418-10



퇴임 인사



노지영 한국 국제교류원
(근무: 2020.12.-2025.3.)



좋아하는 오이타의 장소

오이타역 옥상 전망탑

좋아하는 오이타의 자연

고코노에정 다데와라 습원

좋아하는 오이타의 음식

당고지루

좋아하는 오이타의 술

가보스 하이볼

즐거웠던 오이타의 추억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 ♥ 

퇴임 인사를 쓰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야속하게 흐르는지 오이타에 온 지 벌써 5년이 흘러 이번 연도를 끝으로 국제교류원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절,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일본에 왔는데 일상생활과 업무 등에 많은 영향이 생겨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다독이며 곁을 내 주시던 많은 분들 덕에 긍정적이고 즐겁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한순간도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일본-오이타에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생애 첫 일본에서 본 벚꽃은 왠지 더욱 예뻐 보였고,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여름 하늘은 매년 기다려졌으며, 'What's Up, OITA!' 취재 기사 작성을 위해 구석구석 방문했던 현 내의 장소들은 하나같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이타의 매력을 잘 알고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한번 국제교류원은 영원한 국제교류원이니, 한국에 가셔도 제가 보고 느낀 오이타의 매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오이타에서 지내는 동안 저에게 크고 작은 변화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에 관심이 생겼고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나의 것부터 소중히 여겨야 타인의 것 역시 아껴줄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했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운명처럼 오랜 꿈도 이루었습니다. 오이타에서 정말 많은 성취가 있었기에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땅'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익숙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새출발을 앞두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오이타에서 배우고 느낀 경험을 발판 삼아 씩씩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행복했던 이곳에서의 추억을 영원히 가슴속에 품고, 언젠가 다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P.S. 오이타시에 본점이 있는 백화점 사거리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잠깐,
바닥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워지면 꼭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퇴임 인사

오이타시를 향해 달리는 리무진 버스의 창밖 너머로 봄의 포근한 햇살과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윽고 고즈넉한 니시오이타의 주택가가 눈에 들어오자 이 곳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다양한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일본에 사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매일 기대되면서 불안했고, 즐거움과 긴장감이 함께하는 날들은 짧은 듯 긴 듯 느껴졌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실패도 자주 했는데요. 첫 출근 날 퇴근 후 집에 와서야 거실에 등이 없는 것을 알아서 서둘러 가전제품 판매점에 사러 가기도 했고, 순환선 열차 티켓의 사용 구간을 잘못 사서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역무원이 회수해 버려 눈물을 머금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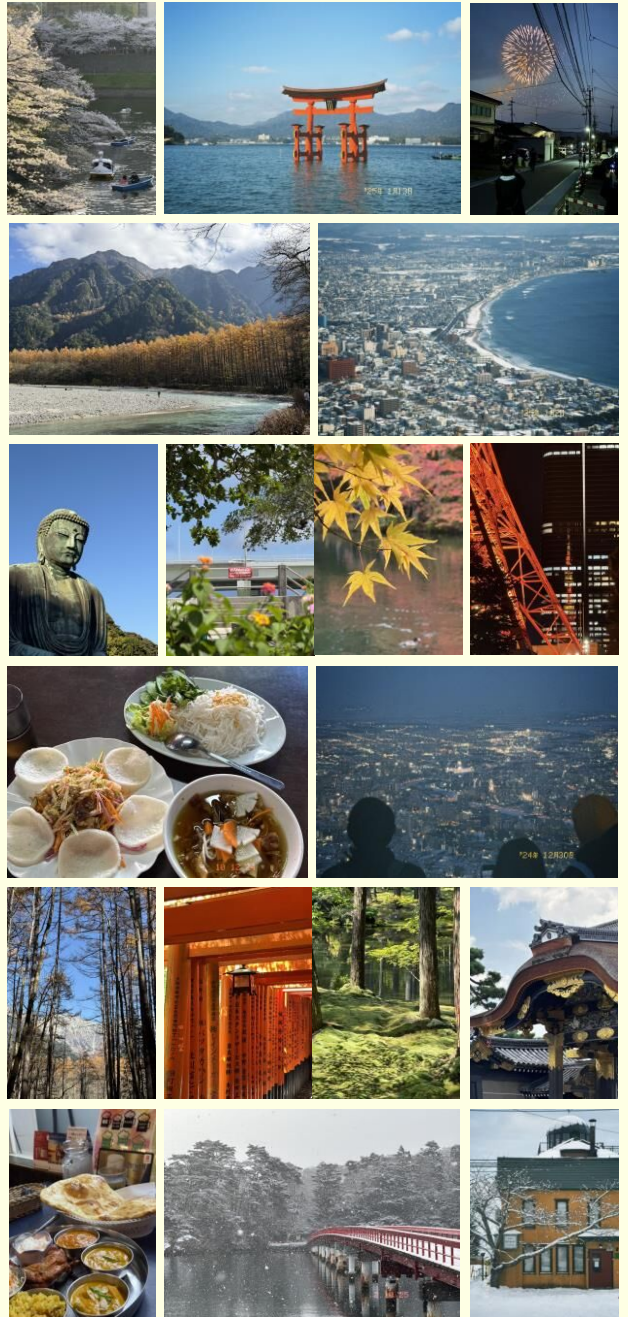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행운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적으로나 사적으로 저를 지탱해 주었던 멋진 상사와 동료들, 중국어 공부에 힘을 쏟던 분들, 여행지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사람들을 만나며 ‘이치고 이치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연’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살아 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좋아했던 일본은 더욱 애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던 도쿄 지도리가부치 공원, 시원한 바람에 무성한 풀이 나부끼던 다데와라 습원, 울창한 숲 속에 근엄하게 자리잡고 있던 우사 신궁, 부서지는 파도에 신전이 반짝반짝 빛나던 히로시마 이쓰쿠시마 신사... 마음이 떨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대만 가수의 오키나와 콘서트, 자그마한 미술관 정원에 울려 퍼지던 곡들, 즐겨 하는 게임의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직접 구매한 전리품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안녕 여름날.
언제까지도 잊지 않을게요.”
-야마시타 다쓰로
‘안녕 여름날’ 가사 중



오이타에 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만든 추억들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노지 in 오이타

국제교류원의 일상

- 마지막 화 -



글/그림 노지영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미술시간에 강래희망을 그릴 때면
늘 반드시 빨간 뽕모자를 쓰고
팔레트를 들고있는 화가를 그렸죠.



하지만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림은 취미로 접어두고 현실을 살다가,



오이타에 와서 와츠업 편집 일을 하며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어주셨으면 해서
이목을 끌고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외국인의 일상을 누가 보긴 할까?’
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제 만화를 봐 주셨고,



또 직접 만나실 때면 만화잘 보고 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이곳에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약 5년 동안 노지의 이야기를 함께
즐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지 in 오이타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와츠업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